

## 장애인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Identify Planing Elements of Small Scale Community House for the Disabled though Stakeholders Participated Methods

---

|                    |                                                                                                                                                                     |
|--------------------|---------------------------------------------------------------------------------------------------------------------------------------------------------------------|
| 저자<br>(Authors)    |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김혜연<br>Lee, Yeun-Sook, June, Eun-Jung, Park, Hee-Eun, Kim, Hye-Yeun                                                                                  |
| 출처<br>(Source)     | <a href="#">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4)</a> , 2018.8, 23-34(12 pages)<br><a href="#">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7(4)</a> , 2018.8, 23-34(12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한국실내디자인학회</a><br>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076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0760</a>                     |
| APA Style          |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김혜연 (2018). 장애인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4), 23-34                                                                       |
| 이용정보<br>(Accessed) | 서울특별시<br>202.14.90.***<br>2020/01/21 14:01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장애인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 Identify Planing Elements of Small Scale Community House for the Disabled though Stakeholders Participated Methods

**Author** 이연숙 Lee, Yeun-Sook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Rh.D  
전은정 June, Eun-Jung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연구교수\*  
박희은 Park, Hee-Eun / 정회원, 한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김혜연 Kim, Hye-Yeu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Abstract** The disabled have faced many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both thei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hat inference their daily lives. Considering this, there is a growing need to develop user customized housing units that reflect the need associated with the living conditions of them, especi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ir time in everyday living is spent at their hom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lanning elements of small scale community housing for the disabled. In doing so, a user participated planning method was applied whereby small group based workshops were opened to enable participants to engage in discussion and come to an agreement on the relevant it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a group of parents with children having developmental disorders, a group of parents with children having cerebral disorders and a group of persons who provide home care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that open areas that allow ease of movement within spaces, high-utility storage spaces and a minimal amount of living commodities were in-demand within individual housing unit spaces. In forming housing unit clusters, a small number of neighboring households was found to be in demand. In the case of community living spaces, the study found that spaces that enable social exchange and spaces in which multi-functional activities can be pursued were in demand. In the case of community work spaces, there were different opinions on the interest levels of the disabled from complete strangers whereby some expressed an interest in greater interaction with their local communities while others expressed an interest to remain exclusive. A variety of compositions that fit the various needs of the community spaces were found to be in demand with regard to the overall shaping of a community.

**Keywords** 장애인,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사용자참여계획  
Disabled, Small Scale Community, Planning Elements, User Participated Planni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정부는 사회취약계층들의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

해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sup>1)</sup>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 같은 경우 2017년 추정 장애인인구 수는 267만명으로 장애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등록 장애인 비율은 증가<sup>2)</sup>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unojune@hanmail.net

\*\*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2018R1A2B6008953)의 지원 및 2018년도 정부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7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2면)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보건복지부, 한국형“커뮤니티케어”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2018.5, p.2

따라 노인장애인, 후천성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출현으로 이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며 더욱이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탈시설화를 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지원(Supported living) 주거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비시설적 주거모델 조성의 필요성을 규명한 바 있다.<sup>3)</sup>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장애인 인권적 대안을 조성하여 주도적으로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 내에서 지역사회 교류와 다양한 기관협력 등을 통해 시설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였다.<sup>4)</sup>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지원주택에 대한 일련의 컨퍼런스<sup>5)</sup>와 국제심포지엄<sup>6)</sup>에서는 거주공동체가 지닌 장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단위주택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소규모공동체주택이란 공유주택의 일환으로서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취약계층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적정주택이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생활요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생활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요소들을 추출하여 계획되어야 주택이 이들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아가 주거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요소에 대한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규모공동체주택의 계획요소들은 단위주거공간의 크기, 적정이웃의 규모,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기능과 구성, 전체 주거커뮤니티의 배치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소집단 워크숍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증적인 생활요구들을 파악하고 참여역량을 증진시켜,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교류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주거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유형은 극히 한정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주택유형의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 2. 이론적 배경

### 2.1.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현황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사를 희망하는 장애인가구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보다 넓은 좋은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서’ 등 자가 소유와 넓은 평수의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간’과 ‘주거비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또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과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였다.<sup>7)</sup> 이는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자가 주택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과 동시에 일자리 등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신체적 장애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의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어진다. 정신적 장애에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되어진다. 이에 따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설비기준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에 속하는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같은 경우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재활 및 훈련에 필요한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같은 경우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른 필요면적을 확보해야 한다.<sup>8)</sup>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각기 생활하

2) 우리나라 장애 추정 인구수는 2005년 214만명, 2011년 268만명, 2014년 273만명, 2017년 267만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8.4, pp.5-6

3) 백은령, 이은미,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의 정주감과 주거환경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9, 2012, pp.212-213

4) 김호현, 정신장애인대안공동체 연구:일본 베텔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집, 2016, pp.208-216

5) 이연숙,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복지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변혁기체로서의 지원주택, 한국주거학회·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17.9, pp.103-133

6) 이연숙, 지원주택의 실천과 기대효과, 엔젤스헤이븐·연세대학교 주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5.9, p.50

7) 국토교통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결과, 2016.6, pp.4-6

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제41조 및 제42조 관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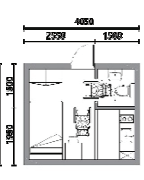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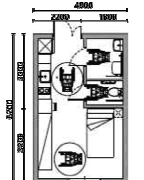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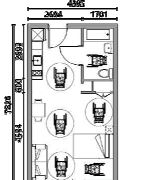
는 방식과 요구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 유형에 맞는 적합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자립생활주택<sup>9)</sup>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과 같은 자립생활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1인 독립공간 부족과 거주기간 제약, 자립을 위한 과도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0)</sup>

## 2.2. 국내외 주거단위공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제17조)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단위주거공간의 공공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공공기준(14㎡)은 일본(24.8㎡)과 미국(34.76㎡)에 비해 규모 면적이 좁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회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간구성 같은 경우 한국 공공기준에서는 부엌 통합형과 화장실 직접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이동성을 감소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지 못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1> 국내외 주거단위공간 공공기준 비교분석(현지원, 2018)

|          | 한국 공공기준                                                                             | 일본 공공기준                                                                             | 미국 공공기준                                                                             |
|----------|-------------------------------------------------------------------------------------|-------------------------------------------------------------------------------------|-------------------------------------------------------------------------------------|
| 평면       |  |  |  |
| 규모       | 14㎡ (4.2평)                                                                          | 24.8㎡ (7.5평)                                                                        | 34.76㎡ (10.5평)                                                                      |
| 구성       | 현관, 화장실, 침실, 주방                                                                     | 현관, 화장실, 침실, 주방                                                                     | 현관, 화장실, 침실, 주방                                                                     |
| 공간 구성    | - 부엌 통합형<br>- 화장실 직접연계형                                                             | - 부엌 분리형<br>- 화장실 분리형<br>- 화장실·샤워실 분리                                               | - 부엌 분리형<br>- 화장실 분리형<br>- 침실공간 분리<br>- 사생활 보장 가능                                   |
| 부수 요소    | - 바닥의 문턱 장애<br>- 안전손잡이 부재                                                           | - 문턱의 부재<br>- 화장실 안전손잡이<br>- 화장실 여닫이문                                               | - 문턱의 부재<br>- 화장실 안전손잡이<br>- 화장실 목조 확보<br>- 화장실 미닫이문                                |
| 휠체어 기구대입 | - 화장실 회전 불가<br>- 공간상 회전 불가                                                          | - 화장실 접근 가능<br>- 회전 가능<br>- 공간상 회전 충분                                               | - 화장실 접근 가능<br>- 회전 가능<br>- 공간상 회전 충분                                               |

반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엌과 화장실 분리형, 화장실과 샤워실 분리, 침실공간 분리, 프라이버시 보장 가능 등으로 공간구획을 명확하게 계획되었으며 활

동영역 반경을 넓히고 이동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평면이 장애인들의 활동반경이 어느 정도 포용하는가에 대해 평면예제들의 휠체어 회전반경을 표시한 것은 다음 <표 1><sup>11)</sup>과 같다.

## 2.3. 소규모공동체주택의 개념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계층별 부담능력과 지역별 주거수요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물량 중심으로 주택을 생산하였으며 수요자 접근성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거주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택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살던 동네에 계속 살면서 함께 지내던 이웃들과 모여 살 수 있는 공동체주택이 소규모로 확산되고 있다.<sup>12)</sup>

공동체주택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에서 2013년 정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sup>13)</sup>, 공동체주택 개념을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와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육아보육, 노후생활, 예술가, 사회초년생 등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특화된 주택으로 보고 있다.<sup>14)</sup>

최근 이연숙(2017)은 취약계층에 따라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모델로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제안하였고<sup>15)</sup>, 소규모공동체주택은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 공동사용에 대해 얼마나 허용하는가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구와 프라이버시를 중점으로 한다. 그 성격은 지원주택과 생애셀프케어주택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나 자녀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신 스스로의 삶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대상으로 사용자참여계획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탈노숙인(박재현 외, 2018)과 고시원거주자(이연숙 외, 2018)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소규모공동체주택이 건강과 경제 차원에서 자립을 도모하며 사회의존인구를 사전에 경감시킬 수 있으며, 주거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출되었다.

## 3. 연구 방법

11) 현지원, Study on improvement of appropriate area for single of public rental houses,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18 제인용

12) 이운서, 추진주체와 공동체주택, 건축 제61권 제07호, 2017.7, p.37

13) 남원석, 서울시 공동체 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축 제60권, 제06호, 2016.6, p.12

14)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개념,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48404>, 2016.1.28

15)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R&D 성과물 '소규모공동체주택 사용자참여계획 지원도구 매뉴얼(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2017)' 참조

9)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함. 서울특별시재단, <https://www.welfare.seoul.kr/business/happy/facility/about>, 2017.12

10)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사업, <http://angelsheaven.or.kr>, 2013

### 3.1. 워크숍의 개요

본 연구는 소규모공동체주택 구성에 있어 계획요소에 필요한 요구들을 추출하고자 함으로서, 주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참여계획(User Participated Planning)<sup>16)</sup>을 사용하였다. 이후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소수로 구성된 참여자 집단들이 그들의 요구 및 문제 등을 스스로 토의하고 집단의 공통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집단 워크숍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3.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시 'E'재활원<sup>17)</sup>에 공고하고 협조를 구하여 모집하였으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요구조건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sup>18)</sup> 특히 장애인부모의 경우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본다는데 있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집단,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집단,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 총 3집단으로 구성하여 2017년 7월 21일, 26일에 거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소집단 워크숍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참여자 3인을 1집단으로 하여 집단별로 2시간 동안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3.3. 소규모공동체주택 워크숍 진행과정

참여자들은 소규모공동체 주택의 주요 계획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단위주거공간 크기, 단위주거 클러스터, 공유공간, 단위주거와 공유공간 배치 순으로 직접 계획하였다. 이때 제시된 단위주거 프로토타입공간은 “국토교통부R&D 주거복지실험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및 주거환경개선 기술개발”에서 제안한 건강과 인권을 위해 필요

한 최소규모의 단위주거공간 약 34.6m<sup>2</sup> (10.5평)으로 화장실, 간이부엌,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공간이다.<sup>19)</sup> 또한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시된 공간은 약 27평으로 특정한 계산 방법에 제안한 것이 아니며 조성하는 커뮤니티 규모도 다양할 것이므로 어떠한 공간의 크기이던 현재 참여계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체 주거커뮤니티의 배치계획은 단위주거와 공유공간의 접근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참여자들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절충해 나가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참여자들의 합의과정에서 세 명이 모두 원하는 기능은 확인 후 조성하게 하고, 두 명 혹은 한 명이 요구한 경우에도 계획과정에서 서로 의논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주민참여계획지원 워크숍에 사용할 요소 도구

|              | 그림 도구 | 질문사항                                                                                                                                                          |
|--------------|-------|---------------------------------------------------------------------------------------------------------------------------------------------------------------|
| 단위주거 요소      |       | 주택 크기에 대한 의견<br>- 생활재와 수납시설<br>- 바닥면적의 크기<br>- 이동과 활동의 수월성<br>화장실 두 유형에 대한 의견<br>- 고정적 무장에 화장실<br>- 유동적 무장에 화장실<br>공간 활용 방법<br>- 다양한 활용방안 선택<br>- 그 외 자유방안 탐색 |
| 단위주거 클러스터 요소 |       | 주거단위 조합개수에 대한 의견<br>- 4개 ~ 12개<br>두 유닛을 세트로 한 반응<br>- 공간 연결의 다양성                                                                                              |
| 공유공간 요소      |       | 일상생활 공유공간 활용<br>- 다양한 공간사용 예제 참조<br>- 실내 계획 체형<br>일상작업 공유공간 활용<br>- 다양한 공간사용 예제 참조<br>- 실내 계획 체형                                                              |
| 단위주거·공유공간배치  |       | 주거단위·공유공간의 연결 관계<br>- 주거클러스터<br>- 일상생활 공유공간<br>- 일상작업 공유공간                                                                                                    |

워크숍 진행은 참여자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시각적 조사도구를 활용해 계획하였다. 워크숍 순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에 거쳐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2>과 같다.<sup>20)</sup>

16)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음.

17) 서울시 'E'재활원은 장애인복지시설로 1970년에 개원하였음. 장애인들에게 생활, 건강 지원, 교육, 직업재활, 자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있으며 체험홈과 그룹홈 등을 추진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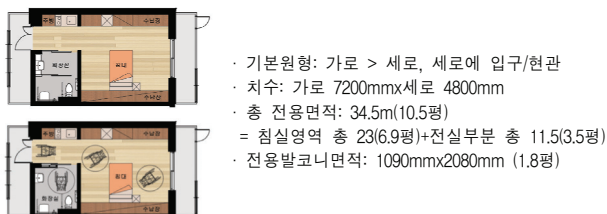
18)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일부 개정 2017.12.19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87>

19) 종래에 인체역학치수를 수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활동을 수월하고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공간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크기임.

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대상자를 달리한 탈노숙인 연구(박재현 외, 2018), 고시원 연구(이연숙 외, 2018)와 동일하며, 본 논문의 일부 이미지와 설명들은 중복될 수 있음.

첫 번째, 참여자들이 현재 주거생활 현황과 미래 주거 계획 구상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류하였다. 이후 소규모 공동체주택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용자참여계획 연구와 워크샵 진행방법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는 본 연구 주제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이에 따른 적정응답을 하게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장애인 워크샵 참여자들의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워크샵의 과정들을 제시한 시각적 조사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위주택 평면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생활재와 수납시설, 바닥면적 크기, 이동과 활동의 수월성 등 주택 크기에 대한 정보와 고정적 무장에 화장실, 유동적 무장에 화장실 등 두 유형의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단위주거공간 평면도를 제시한 시각적 조사도구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최저주거면적과 구성기본도면

단위주거공간 활용 방법에서는 공간기본구성인 침대 유형, 테이블 및 의자, 수납용량 등의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다양한 거주자의 생활특성에 맞게 사용자 유형시나리오별 공간계획 가능성의 예제를 제시한 시각적 조사도구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단위주거공간 계획안

세 번째, 단위주거 클러스터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주거단위 조합개수와 두 유닛을 세트로 한 다양한 평면 사용유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네 번째, 공동커뮤니티공간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일상생활 공동공간과 일상작업 공동공간으로 나누어 의견을 공유하였다. 공동커뮤니티공간은 총 27평 정도의 공간으로 주방과 화장실의 기본설비만 갖추고 있고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sup> 참여자

21) 공유공간인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준비한 도구인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다양한 공간사용 예제 참조 표를 제시하여 실내 공동커뮤니티공간계획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예제계획안을 만들어낼 때 진행한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공유공간 사용방안 과정 시뮬레이션 예제

| 원하는 공동생활 기능                                                                                                                                                                                                                                                | 영역 구성                                                                                                                                                                       | 평면도 실내계획특성                                                                                                                                                                                          |
|------------------------------------------------------------------------------------------------------------------------------------------------------------------------------------------------------------------------------------------------------------|-----------------------------------------------------------------------------------------------------------------------------------------------------------------------------|-----------------------------------------------------------------------------------------------------------------------------------------------------------------------------------------------------|
| 그림 도구                                                                                                                                                                                                                                                      |                                                                                                                                                                             |                                                                                                                                                                                                     |
| <b>설명</b><br>1. 원하는 기능들을 파악<br>- 기준표를 근거로 1~13 중 선택<br>- 공동식사, 실내조경,<br>- TV시청, 휴식담소<br>2. 기본 그리드 이해<br>- 행위 중첩 시 겹쳐서 표시<br>3. 위 기능들의 중요한 비중 파악<br>- 공동식사 50%<br>- TV시청 20%,<br>- 휴식담소 20%<br>- 실내조경 10%<br>4. 아래서부터 높은 비중을 표시<br>- 기준표를 근거로 색상 사용<br>색반투명 | 1. 고정설비 특성<br>- 부엌설비, 화장실, 창문<br>2. 원하는 기능의 위치 구상<br>3. 기능간 관계 고려<br>- 행위 중첩 시 겹쳐서 표시<br>- 실내조경이 공동식사에 중첩<br>- 그 외 분리<br>4. 공간크기를 고려하여 표시<br>- 기능 면적 크기<br>- 기준표를 근거로 색상 사용 | 실내 사용인원 최대수 : 6명<br>- 식사영역이 4명 단위로 3개 클러스터<br>- 실내식물이 식사영역에 인접되어 신선한 분위기<br>- TV시청 및 휴식용 소파<br>- 소규모 담화공간이 코너에 위치<br>- 식사공간과 TV시청공간을 구분해주는 가구가 존재<br>- 입식생활은 오른쪽 위 코너, 좌식생활은 왼쪽 아래<br>- 코너를 중심으로 구획 |

공동생활공간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거주자 간 교류와 공동체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든지 사용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회적 교류, 정서적 생활, 신체적 단련, 생활관리 등의 생활기능을 담을 수 있으며, 각 개인실에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생활기능들을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 공동생활공간을 소통하기 위한 예제 도구

이 공동생활공간 기능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 공간기능 리스트를 예제로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이중 우선 순위로 선택하게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하였는데, 3D모형에 가구 블록을 활용하여 직접 배치하게 하였음.

콘텐츠는 총 18개로 그 중 예제로 「원예/작물재배 중심형 공동생활공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이 공간은 원예 작물재배를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간구성은 무장애 출입으로 접근성이 수월하고, 함께 조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공간, 작업교류공간, 이동보조기구 보관 영역, 세탁 및 건조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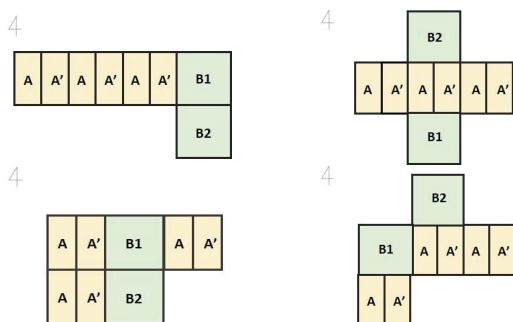
공동작업공간은 거주자간 교류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외부인들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작업을 위한 훈련과 거주공동체가 경제적공동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공간으로서의 직주근접의 특성을 지니며 직능훈련,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도시설과 조리시설, 폐수배출시설, 화장실, 다목적 수납고가 설치되어 있다. 작업공간 기능에 대한 콘텐츠는 총 18개로 그 중 예제로 「예술창작을 위한 공방 중심형 작업공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4>과 같다.



<그림 4> 공동작업공간을 소통하기 위한 예제 도구

이 공간은 각종 생산품을 제작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을 도모하는 경제공동체 공간이다. 공간구성은 무장애 출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작업공간, 예술작품을 전시 및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물건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다섯 번째, 단위주거와 공유공간의 배치에 대한 계획요소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림 5> 단위주거공간과 공동커뮤니티공간 구성의 예제 도구

이를 위해 A, A'로 표시된 단위주거공간과 B1, B2로 표시된 공동커뮤니티공간으로 제시한 조사도구를 활용해 참여자들이 직접 배치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다양한 단위주거공간과 공동커뮤니티공간 구성 예제는 총 30개로 개발되었으며 그 중 4개의 구성 예제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5>과 같다.

## 4. 연구 결과

### 4.1. 집단별 조사대상지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수는 총 9명으로 집단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이들 참여자들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E'재활원에서 필요 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4> 장애인 참여자 집단별 특성

|       |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                                                         |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                                                                             | 재택서비스전달자                                                                                               |
|-------|---------------------------------------------------------------------------|------------------------------------------------------------------------------------------------|--------------------------------------------------------------------------------------------------------|
| 참여자 a | 성별: 여 (만 53세)<br>직업: 계약직<br>자녀성별: 여 (만 25세)<br>자녀장애등급: 지적1급<br>보조기구 유무: 무 | 성별: 여 (만 51세)<br>직업: 가정주부<br>자녀성별: 여 (만 21세)<br>자녀장애등급: 뇌병변장애, 지적장애<br>보조기구 유무: 유 (자세보조기, 휠체어) | 성별: 여 (만 37세)<br>직업: 전문 관리직<br>근무지: 'E'재활원<br>지역사회지역통합팀<br>구체적 업무: 체험홈 이용자 케어                          |
| 참여자 b | 성별: 여 (만 57세)<br>직업: 계약직<br>자녀성별: 남 (만 22세)<br>자녀장애등급: 지적1급<br>보조기구 유무: 무 | 성별: 여 (만 50세)<br>직업: 무직<br>자녀성별: 여 (만 20세)<br>자녀장애등급: 뇌병변장애<br>보조기구 유무: 유 (유모차형 휠체어)           | 성별: 여 (만 30세)<br>직업: 사무직<br>근무지: 'E'재활원 여성<br>지역장애인 생활시설<br>합치원팀 생활재활교사<br>체험홈 담당                      |
| 참여자 c | 성별: 여 (만 53세)<br>직업: 무직<br>자녀성별: 남 (만 24세)<br>자녀장애등급: 지적2급<br>보조기구 유무: 무  | 성별: 여 (만 26세)<br>직업: 프리랜서<br>자녀성별: 여 (만 8세)<br>자녀장애등급: 뇌성마비<br>보조기구 유무: 유 (휠체어, 이너)            | 성별: 여 (만 38세)<br>직업: 사무직<br>근무지: 'E'재활원<br>자립지원팀장<br>구체적 업무: 지역사회에<br>배치된 아파트, 빌라 관리 및 이용인 서비스 자원 및 총괄 |

제 1집단은 연령이 53세, 57세, 53세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녀 장애인의 연령은 20대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과 편의시설과의 이동 동선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제 2집단은 연령이 51세, 50세, 46세로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녀 장애인의 연령은 대부분 20대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들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협소하고 문턱, 단차 등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제 3집단은 연령이 37세, 30세, 38세인 재택서비스전달자로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다. 이들은 'E'재활원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룹홈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체험홈에서 24시간 이용자 케어, 생활재활교사,

서비스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참여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택 내 면적, 기본생활요소 등의 문제점에 대한 어려움과 독립생활 하는데 주택의 개선 요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4.2. 워크숍 결과분석

### (1) 발달장애인자녀를 지닌 부모 집단

각 집단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단위주거계획, 단위주택 클러스터, 공유공간계획, 전체 커뮤니티의 배치계획으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 워크숍 결과

| 공간구분          |                | 요구 항목    | 참여자 의견              |   |   | 최종 합의                                                                               | 의견 종합 결과                                                                            |
|---------------|----------------|----------|---------------------|---|---|-------------------------------------------------------------------------------------|-------------------------------------------------------------------------------------|
|               |                |          | a                   | b | c |                                                                                     |                                                                                     |
| 단위 주택         | 규모             |          | ○                   | ○ | ○ |    |                                                                                     |
|               | 생활<br>재        | 침대       | ○                   | ○ | ○ |                                                                                     |                                                                                     |
|               |                | 소파       | ○                   | ○ | ○ |                                                                                     |                                                                                     |
|               |                | 탁자       | ○                   | ○ | - |                                                                                     |                                                                                     |
|               |                | 식탁       | ○                   | - | - |                                                                                     |                                                                                     |
| 단위주택 클러스터     |                |          | 4-6가구가 적정           |   |   |                                                                                     |                                                                                     |
| 공유<br>공간      | 공동<br>생활<br>공간 | 공부/컴퓨터사용 | ○                   | - | ○ | ●                                                                                   |   |
|               |                | TV시청     | ○                   | ○ | ○ | ●                                                                                   |                                                                                     |
|               |                | 어린이놀이/게임 | -                   | ○ | - | ●                                                                                   |                                                                                     |
|               |                | 운동/체력단련  | ○                   | ○ | ○ | ●                                                                                   |                                                                                     |
|               | 공동<br>작업<br>공간 | 식자재 가공실  | ○                   | ○ | ○ | -                                                                                   |  |
|               |                | 원예작물 재배실 | ○                   | - | - | ●                                                                                   |                                                                                     |
|               |                | 간이 슈퍼마켓  | ○                   | ○ | - | -                                                                                   |                                                                                     |
|               |                | 카페/식당    | ○                   | ○ | ○ | ●                                                                                   |                                                                                     |
|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 |                |          | 공유공간이 단위주거를 끼고 분산배치 |   |   |  |                                                                                     |

첫 번째, 개별 단위주거 공간의 경우 반찬가게, 음식점 등 주위에 외부지원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이들에게 제시된 10.5평의 단위주거공간은 적정하게 인지되었다. 생활방식에서는 싱글침대가 필요한 3인, 소파가 필요한 3인, 탁자가 필요한 2인, 식탁이 필요한 1인으로 생활재(가구) 요구정도가 다양하였다.

두 번째, 단위주택 클러스터의 경우 4-6가구가 적정하다고 하였다. 이는 비장애인들과의 교류보다는 장애인자녀가 적응하는데 있어 최소규모가 수월하고 각 가구마다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였다.

세 번째, 공동생활공간은 거주자들이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계획하게 하였다. 이들 중 발달장애인을 지닌 부모집단은 공동생활공간을 조리와 식사를 함께하고, 운동, 게임, TV시청을 하는 등 다양한 생활기능을 지닌 일상적 거실로 활용하기

를 원하였다. 이들은 컴퓨터, TV, 신체적 게임기구 등 매체도구를 통해 장애인자녀들이 사회교류하기를 원하였으며, 건강에 중점을 두어 활동성이 있는 생활공간을 요구하였다. 그 합의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 명이 모두 원하는 공간은 TV시청, 운동/체력단련 공간이어서 두 기능은 수월하게 합의됨을 확인하였다. 두 명이 요구한 공부/컴퓨터 공간은 나머지 한사람이 수용하여 포함하기로 하였다. 공부/컴퓨터 사용은 자녀들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공간을 분산시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식사·차 교류를 위한 테이블도 한쪽에 설치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컴퓨터를 보며 대화도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한 명이 요구한 어린이놀이/게임 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처음부터 일치를 보였던 기능들과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요구를 보였던 참여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운동 및 컴퓨터, TV기능을 수용하는 대안으로 합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종 합의한 계획을 제안된 도면에 스스로 원하는 가구들을 선택하여 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작업공간은 거주자들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소통의 장으로서 계획하게 하였다. 이들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 집단은 공동작업공간을 일자리와 일거리 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허브차 판매카페 기능으로 공간을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자녀들의 재능과 관심을 반영한 작업을 원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공유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가기를 원하였다. 그 합의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 명이 모두 원하는 공간은 카페/식당 기능으로서 우선적으로 합의되었다. 세 명 모두 단순 가공 작업을 원하였지만 식자재 가공실의 단순가공을 원예작물 재배실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두 명이 요구한 간이 슈퍼마켓은 카페에서의 진열기능과 계산기능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명이 요구한 원예작물 재배기능은 카페공간에 결합하여 직접 재배한 허브차를 판매하는 카페로 차별하는 방식으로 수용되기를 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장점을 살려 식물재배를 좋아하는 거주자가 허브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다음 이를 카페 식음료에 적용시켜 허브차를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요구를 보였던 참여자들이 카페 및 작물재배 기능을 수용하는 대안으로 합의하였다.

네 번째,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sup>22)</sup>의 경우 공유공간이 단위주거를 끼고 분산배치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단위세대와 공동생활공간을 근접하게 배치하여, 이동의 편리성에 따른 이웃 간의 교류 활성화를 중점을 두었다.

22) 단위주거, 공동생활공간, 공동작업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각 공간을 대표하는 블록을 준비하여 참여자가 직접 배치하게 함.

단위세대와 공동작업공간은 거리감을 두었는데 활동량이 적은 장애인자녀들이 출퇴근하는 기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 집단

이와 같은 방법으로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 워크샵 결과

| 공간구분          | 요구 항목    | 참여자 의견                                                                                                                             |   |   | 합의 내용 | 의견 종합 결과                                                                          |
|---------------|----------|------------------------------------------------------------------------------------------------------------------------------------|---|---|-------|-----------------------------------------------------------------------------------|
|               |          | a                                                                                                                                  | b | c |       |                                                                                   |
| 단위주택          | 규모       | ○                                                                                                                                  | ○ | ○ |       |  |
|               | 침대       | ○                                                                                                                                  | ○ | - |       |                                                                                   |
|               | 소파       | ○                                                                                                                                  | ○ | - |       |                                                                                   |
|               | 탁자       | ○                                                                                                                                  | - | - |       |                                                                                   |
|               | 식탁       | ○                                                                                                                                  | - | - |       |                                                                                   |
| 단위주택 클러스터     |          | 4-6가구가 적정                                                                                                                          |   |   |       |                                                                                   |
| 공유공간          | 공동 생활 공간 | 공동조리/식사                                                                                                                            | ○ | ○ | ○     | ●                                                                                 |
|               |          | 카페교류                                                                                                                               | - | - | -     | -                                                                                 |
|               |          | 공부/컴퓨터사용                                                                                                                           | ○ | - | -     | -                                                                                 |
|               |          | 휴식담소                                                                                                                               | - | ○ | -     | ●                                                                                 |
|               |          | 영화감상                                                                                                                               | ○ | - | ○     | ●                                                                                 |
|               |          | 실내조경감상                                                                                                                             | ○ | - | -     | -                                                                                 |
|               |          | 운동/체력단련                                                                                                                            | ○ | - | ○     | ●                                                                                 |
|               |          | 물건보관정리                                                                                                                             | ○ | - | -     | -                                                                                 |
|               |          | 세탁/건조/정리                                                                                                                           | ○ | - | -     | -                                                                                 |
|               |          | 공동샤워실                                                                                                                              | ○ | ○ | ○     | ●                                                                                 |
|               | 공동 작업 공간 | * 공동 작업공간은 지역사회와 단절 우려로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                                                                                                |   |   |       |                                                                                   |
|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 |          | * 전체커뮤니티 구성의 경우 뇌병변장애인 자녀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열망이 높아 공동작업공간이 또다시 장애인 자녀를 고립시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응답 안함. |   |   |       |                                                                                   |

첫 번째, 제시한 10.5평의 단위주거공간의 경우 휠체어, 유모차형 보조기를 사용하는 자녀들에게는 부족하다고 인지되었으나, 두 개의 유닛을 붙여 화장실 공동 이용 등 유동적으로 면적을 확보할 경우 제안된 10.5평 공간은 적절한 규모로 받아들였다. 또한 가변적 수납시스템가구를 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시된 공간크기는 적정하다고 하였다.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싱글침대, 소파, 탁자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2인 등 그 의견들이 다양하였다. 반면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경우 침대와 식탁구성, 침대와 소파, 식탁구성 등 기본적인 생활가구만을 요구하여 최소의 생활채로 최대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였다.

두 번째, 단위주택 클러스터의 경우 4-6가구가 적정하다고 하였다. 이는 각 가구마다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의 가구로 구성하기를 원하였다.

세 번째,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공동생활공간에서는 공동식사 및 조리 공간, 휴식담소, 영화감상, 재활기구와 공동 샤워실 등 다양한 생활기능을 가진 거실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공동생활공간 안에 개인생활공간에서 한계를 지닌 요구들을 반영하길 원하였다. 특히, 공

간 면적이 크게 요구되는 뇌병변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목욕 시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도록 모색하여 추가적으로 공동샤워실 공간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일자리와 일거리 등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은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된 시스템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외부사람들과 교류 및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 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주택 내에 작업공간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단절을 일으킬 수 있고 복지기관에 따른 국가비용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자녀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 작업활동을 통해 지역교류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시설 작업공간 편견영향과 지역사회교류 단절을 우려하여 공동작업공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즉 일거리, 일자리까지 주택 내 인접해있으면 지역사회로 통합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sup>23)</sup>

네 번째, 이들 집단은 공동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무응답하였다.

## (3)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 워크샵 결과

| 공간구분          | 요구 항목    | 참여자 의견                    |   |   | 합의 내용 | 의견 종합 결과                                                                              |                                                                                       |
|---------------|----------|---------------------------|---|---|-------|---------------------------------------------------------------------------------------|---------------------------------------------------------------------------------------|
|               |          | a                         | b | c |       |                                                                                       |                                                                                       |
| 단위주택          |          | 장애의 상황에 맞추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수렴 |   |   |       |                                                                                       |                                                                                       |
| 단위주택 클러스터     |          | 4가구가 적정                   |   |   |       |                                                                                       |                                                                                       |
| 공유공간          | 공동 생활 공간 | 공동조리/식사                   | - | ○ | ○     | ●                                                                                     |  |
|               |          | 카페교류                      | ○ | ○ | ○     | ●                                                                                     |                                                                                       |
|               |          | 공부/컴퓨터사용                  | - | - | ○     | -                                                                                     |                                                                                       |
|               |          | TV시청                      | - | ○ | -     | ●                                                                                     |                                                                                       |
|               |          | 휴식담소                      | - | ○ | -     | -                                                                                     |                                                                                       |
|               |          | 영화감상                      | ○ | ○ | ○     | -                                                                                     |                                                                                       |
|               |          | 실내/작물                     | - | - | ○     | ●                                                                                     |                                                                                       |
|               |          | 좌식놀이/운동                   | - | ○ | ○     | -                                                                                     |                                                                                       |
|               |          | 어린이놀이/게임                  | ○ | ○ | -     | ●                                                                                     |                                                                                       |
|               | 공동 작업 공간 | 운동/체력단련                   | ○ | ○ | ○     | ●                                                                                     |  |
|               |          | 세탁/건조/정리                  | - | ○ | -     | -                                                                                     |                                                                                       |
|               |          | 악세사리 제조                   | ○ | - | -     | -                                                                                     |                                                                                       |
|               |          | 밀반찬 작업실                   | - | - | ○     | -                                                                                     |                                                                                       |
|               |          | 간이 슈퍼마켓                   | - | ○ | ○     | -                                                                                     |                                                                                       |
|               |          | 카페/식당                     | ○ | ○ | -     | ●                                                                                     |                                                                                       |
|               |          | 제과제빵점                     | ○ | ○ | ○     | ●                                                                                     |                                                                                       |
|               |          | 예술창작공방                    | ○ | - | ○     | ●                                                                                     |                                                                                       |
| 세탁소           | ○        | -                         | - | - |       |                                                                                       |                                                                                       |
| 의류재활용리폼공방     |          | -                         | - | ○ | -     |                                                                                       |                                                                                       |
|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 |          | 공유공간을주거공간 중앙에 배치          |   |   |       |  |                                                                                       |

23) 소집단 워크샵 종료 이후 이 지원주택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여 학부모가 속한 협회조직에서 이를 실제 개발하였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E' 재할원 시설로부터 전달받았음. 이로써 초기의 작업공간에 대한 반응이 오해였음을 알 수 있었음.

첫 번째, 제시된 10.5평의 단위주거공간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여유있게 인지하였다. 생활방식에서는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에 따라 생활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체적 배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단위주택 클러스터의 경우 4가구가 적정하다고 하였다. 이는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구와 연계한다 했을 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소규모 가구의 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세 번째, 공유공간의 경우 공동생활공간에서는 이들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은 TV시청 및 어린이 놀이/게임을 우선시 하였으며 공동식사 및 조리 공간, 카페교류, 운동 및 체력단련 공간, 실내조경감상, 영화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포용하고 공간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체험홈에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유형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공동생활하면서 이용률이 높고 즐거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외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오락 등 활동적인 기능과 공동식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공동작업공간은 일자리와 일거리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세 가지 기능으로 공간을 운영하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을 고려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 작업 위주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작업과 연계시켜 작업능률을 높이고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제과제빵점, 예술창작공방, 카페로 다양한 작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원하였다.

네 번째,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의 경우 8개 주거단위와 4개 주거단위를 2개로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남향으로 일렬로 배치하였고, 중앙에 두 개 공동공간들을 계획하였다. 이는 공동공간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단위주택에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접근성이 수월하고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5. 결과종합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종합하여 크게 단위주거공간, 단위주거 클러스터, 공유공간 내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기능, 그리고 단위주거와 공동공간 배치 등 4영역으로 집단별 유사성과 상사성을 비교, 논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시 필요한 계획요소, 사용자 참여계획의 사회적 가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참여자들은 제안된 단위주거공간에 대해 외부

지원과 서비스 전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동적인 시스템 가구로 면적을 확보할 경우 적절한 면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위주거공간의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의 생활재를 다양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외부의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들임을 고려하였을 때 자립적인 생활과 건강이 도모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sup>24)</sup>와 비교해보면 탈노숙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구성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면적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시원거주자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건강과 활동을 중시하고 필요한 최적의 생활재를 배치하여 편의를 추구할 때 제시된 면적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건강과 활동 측면에서 적정면적이라 하였으나 장애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최대한의 면적확보를 위해 가변적인 생활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단위주거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4-6가구를 원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소규모 가구 조성을 추구하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가 적응하기 수월한 이웃교류를 원하였다.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집단의 경우 소규모 가구를 통해 각 장애인가구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였다.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의 경우 소규모 가구를 통해 이웃 간의 교류 보다는 각 장애인가구에 맞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였다. 이는 다른 이웃들과의 교류보다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 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소규모 가구 수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탈노숙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4-20가구로 안정적인 이웃교류를 위해 소규모 이웃을 원하는가 하면 대규모 이웃을 통해 선택적인 교류를 원하였다. 고시원거주자 참여자들 같은 경우 4-15가구로 적정규모의 안정적인 이웃관계와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이웃을 원하였다. 반면 4-6가구의 소규모 이웃규모를 원하는 장애인 참여자들은 탈노숙인 참여자들과 고시원거주자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이웃가구 규모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유형별로 생활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공간 활용범위의 요구조건과 지원서비스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커뮤니티공간 중 일상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공간에 대한 기능들이 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에서는 공동식사, 운동, 게임, TV시청 기능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시지각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력이 낮으며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24) 선행연구는 대상을 달리한 탈노숙인 연구(박계현 외, 2018)과 고시원 연구(이연숙 외, 2018)임.

기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자극시켜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사회교류를 하길 원하였다. 뇌병변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에서는 영화감상, 재활기구, 공동샤워실 기능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공동샤워실 같은 경우 목욕 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생활공간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공동생활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였다. 발달장애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은 카페, 게임/놀이 기능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돌보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적인 놀이와 도구를 통해 사회적 교류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원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탈노숙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개인생활공간 내 제약된 공간적 여건을 공유공간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며 건강유지, 이웃 간 사회적 교류 등의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하기를 원하였다. 고시원거주자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공유공간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며 건강을 고려한 활동적 생활과 체력단련, 정보탐색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과 비슷하게 장애인 참여자들도 개인생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공간을 통해 채우고자 하였으나 차이점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즐겨하고 잘하는 부분들을 고려한 기능들을 반영하고자 즉 외부 교류가 제한된 장애인들이 해당공간에서 보다 생기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시각이 높았다.

거주자들이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 도모를 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은 허브차 판매카페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자녀의 관심사와 재능이 접목된 작업 기능을 갖춘 공간을 원하였다.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의 경우 제과제빵점, 예술창작공방, 카페 등 다양한 작업들이 연계된 공간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성향과 전문학교에서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 작업공간을 구성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뇌병변장애인 자녀 부모집단의 경우 주택 외부로 나가 지역사회와의 접촉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택 내 공동작업공간은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에 대한 저항감이 크고 또 지원주택 내 공유공간의 성격이 사회통합형 개방 공유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탈노숙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작업기능과 현실성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요구들을 표출하였다. 고시원 참여자들 같은 경우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한 작업 기능을 원하였으며 수익성과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단순작업 기능을 위한 이들과 달리, 장애인 참여자들은 장애인들의

관심분야와 재능을 고려한 작업 기능을 원하였으나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비장애인들과의 교류 및 단절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교류, 소통 공간이 되게 하고자하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배제로 인한 주택주변상황에 머무를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의 경우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단위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의 연계성에 대해 고려하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닌 부모집단 같은 경우 단위주거공간을 끼고 공유공간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이는 공동생활공간이 갖는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거공간과 근접하게 배치하였고 공동작업공간 같은 경우 활동량이 적은 장애인들을 고려해 주거공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배치하여 일터에 간다는 느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하였다. 재택서비스 전달자 집단 같은 경우 공유공간을 주거공간에 끼고 배치하였는데, 이는 주거공간에서 공유공간의 접근성이 수월하고 외부 야외활동의 접근성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원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탈노숙인 참여자들 같은 경우 남향을 고려한 주거의 평등배치로 공동생활은 내부에 공동작업공간은 외부에 배치를 요구하였다. 고시원거주자 참여자들 같은 경우 남향을 고려해 공동생활공간은 커뮤니티 안쪽, 공동작업공간은 커뮤니티 바깥쪽으로 배치를 요구하였다. 장애인 참여자들 또한 남향을 고려한 배치를 중시하였으며 단위공간과 공유공간의 거리를 고려한 배치와 공유공간의 외부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구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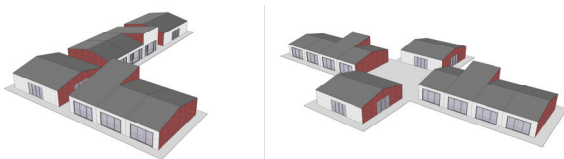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각 집단은 반찬가게, 음식점 등 주위에 외부지원이 가능한 위치이며, 서비스전달 상황 시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제한한 단위주거공간의 크기는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해 적정하다는 인식이 컸다.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 가구들을 선호하였다. 단위주거 클러스터 경우의 합의안은 4-6가구로 집단별로 의견이 상이하였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이웃을 구성하여 각 가구마다 최상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공동커뮤니티공간 중 공동생활공간에서는 매체도구들을 통한 사회적 교류 및 일상생활활동기능을 원하였고 주거공간 면적의 한계점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하였다.

<표 8> 집단별 워크샵 결과 검토 후 최종계획안

| 1집단                                                                               | 2집단                                                                               | 3집단                                                                               |
|-----------------------------------------------------------------------------------|-----------------------------------------------------------------------------------|-----------------------------------------------------------------------------------|
|  |  | *해당사항 없음                                                                          |
| 각자 선택한 생활제에 따른 다양한 배치계획                                                           |                                                                                   |                                                                                   |
|  |  |  |
| 공동식사+운동+컴퓨터                                                                       | 공동식사+재활+공동욕실                                                                      | 공동식사+운동+여가                                                                        |
|  | *해당사항 없음                                                                          |  |
| 허브차 판매카페                                                                          |                                                                                   | 일자리 연계기능                                                                          |
|  | *해당사항 없음                                                                          |  |
| 주거공간과 공동생활공간<br>근접배치, 주거공간과<br>공동작업공간<br>분리배치                                     |                                                                                   | 주거공간과 공동공간<br>직주근접 중앙배치                                                           |

공동작업공간에서는 장애인들의 관심과 재능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선호하였으나 반면, 주택 내 공동작업공간은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야기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단위주택과 공유공간 배치에서는 공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단위주거와 연계 및 분리 배치를 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요구하였다. 공동체주택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소규모의 거주자들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와 공동커뮤니티 공간을 인접하게 배치하였다. 전반적인 건물은 ㄱ형 또는 +형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공간이 형성되어 사회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이를 집단별 워크샵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결국 위와 같은 계획적 요소를 파악한 것은 이후 건축가들의 설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적정계획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이 중 단위주거와 커뮤니티공간의 배치계획을 건축적 형태로 발전시켜 제시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커뮤니티 배치계획안 3D model

본 워크샵을 통해 소규모공동체주택에 대해 참여 집단들은 보다 소규모공동체주택이 주거복지 문제해결에 기여한다고 공감하였고 기존의 획일적인 공간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다 활용 가능한 맞춤형 공간계획 보급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 6.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는 취약계층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공동체주택의 보급을 널리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공간에서 보내고 실내공간에서도 낙상, 부상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한 일반사람들의 편견과 이해의 부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교류활동에 참가하여 지역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주거계획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거가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주거안정화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선도할 수 있는 소규모공동체주택의 주요 계획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공동체주택에서 고려해야할 계획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기구, 휠체어 등의 사용에도 장애물 없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고 장애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면적의 확보,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웃 간 사회적 교류, 소통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작업공간, 넷째, 공동체주택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주거와 공유공간의 접근이 용이한 배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주거복지 지원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거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참여자에게 단순히 신체적 자립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공간계획에 대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 주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건축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오는 경제적 효과와 사용자 지향형 건축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
2. 국토교통부,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택정책과, 2016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형“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2018
5. 이연숙, 지원주택의 실천과 기대효과, 앤젤스헤이븐·연세대학교 주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5
6. 이연숙,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복지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변혁기제로서의 지원주택, 한국주거학회·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17
7. 현지원, Study on improvement of appropriate area for single of public rental houses,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8
8. 김호현, 정신장애인대안공동체 연구:일본 베텔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논문집, 2016
9. 박재현, 이연숙, 김혜연,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9권, 2호, 2018
10. 박희은, 이연숙, 장애인 맞춤형 공동체주택 계획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 2017
11. 박희은, 이연숙, 조승연, 발달장애인 공유주택 공간조성을 위한 부모참여워크샵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9권, 2호, 2017
12. 백은령, 이은미,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의 정주감과 주거환경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9, 2012
13. 이연숙, 박재현, 조승연, 전은정, 조선희,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고시원거주자 참여계획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18권, 2호, 2018
1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5. 로엔비, <http://www.lawnb.com>
16. 서울시복지재단, <https://www.welfare.seoul.kr>
17.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http://citybuild.seoul.go.kr>
18. 앤젤스헤이븐, <http://angelsheaven.or.kr>

[논문접수 : 2018. 07. 02]

[1차 심사 : 2018. 08. 10]

[게재확정 : 2018. 08. 17]